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9-44,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039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과 융합 요인

이성림[1*], 최정희[2]
[1]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2]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Awareness and Convergence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Sung-Lim Lee[1*], Jeong-Hee Choi[2]
[1]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희롱 인식과 융합 요인을 파악하고자 전남지역 치위생과 학생들 418명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성희롱 인식 정도는 4.18점이었으며 성별(p=0.003), 학년(p=0.001), 성희롱 피해 경험(p=0.00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3.62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49, p<0.01).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융합 요인은 자아존중감, 학년,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었으며 설명력은 12.1%였다. 이 연구는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치위생과 학생, 성희롱, 인식, 융합,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convergence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of 418 dental hygiene students in Jeollanam-do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of sexual harassment was 4.18,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with gender, grade an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steem was 3.62.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self-esteem was positive correlated. The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were self-esteem, grade. gender an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tudy was 12.1%. This study, expect to improve sexual harassment awareness levels, develop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use them as basics date to develop a program for education programs above.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Sexual Harassment, Awareness, Convergence, Self-esteem

1. 서론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반기를 지나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이며 대학시절은 인간의 생애 중 의미있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치관, 인생관, 자아정체감 등을 확립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1], 성에 대한 가치관 또한 확립되는 성년 초기에 속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이성교제와 성행위을 실제로 실행 할 수 있는 시기이다[2]. 인간의 성은 사람의 전 생애, 즉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삶과 함께 공존하며, 사람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3].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은 남성과 여성 간 관계성이 규제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성간의 입장과 인식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고 또한 음란물의 홍수와 향락 퇴폐적인 문화환경으로 인해 성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성에

*Corresponding Author : Sung-Lim Lee(ymsllove@wu.ac.kr)
Received July 13, 2020 Revised August 13,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대학을 입학하게 된다[4].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불쾌하고 모욕적인 기분을 들게 하며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이다[5].

성희롱 피해자들은 두통, 위장병, 불면증, 체중감소 등 신체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당혹감, 공포, 분노, 수치심, 무서움, 모욕감, 자존심 손상을 경험하고 업무 수행적으로는 사기, 능률 및 생산성 저하, 결근, 사직 등을 경험한다[6].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성희롱 문제는 제의되어 왔고, 그에 대비한 법률적 규정 및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투와 위드유 운동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성희롱 문제를 살펴보고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7],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8]이며, 만족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위기상황의 극복, 성취에 대한 동기화, 개인의 업무에 대한 효능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9]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성희롱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7,10].

성희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학생[1,10-14]과 직장인[15-17]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으나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조 등[7]과 김[18]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는 오 등[19]과 김[20]이 연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은 직종이나 대상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와 성인식·성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15)에서는 대학교가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며, 학생 대 학생에서, 유형은 언어적인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14].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전남지역 3개 대학교의 치위생과 학생들 425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1부터 5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7명을 제외하고 총 418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시행하였다. G*power 3.1 for Windows program을 활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6개,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설정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46명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거주형태,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고 성희롱 인식(25문항)은 성희롱 발생원인, 성희롱 예방, 성희롱 유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임[21]과 이[16]가 사용한 설문지를 보완 및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10문항)은 Rosenberg[22]가 개발한 도구로 얻은 점수로 이[23]가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까지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문항은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성희롱 인식은 0.883, 자아존중감은 0.854이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SPSS 2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test 및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 정도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각각 4.18점, 3.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ean±SD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4.18±0.39
Self-esteem	3.62±0.54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가 2.4%, 여자가 97.6%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40.0%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0.8%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68.9%이었고,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가 48.3%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 여부는 있다가 63.9%, 없다가 36.1%이었고, 성희롱 피해 경험은 있다가 21.8%, 없다가 78.2%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인식은 성별(p=0.003), 학년(p=0.001), 성희롱 피해 경험(p=0.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3.3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49,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Self-esteem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1	
Self-esteem	0.249**	1

** p<0.01.

3.4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학년,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F값이 15.352,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12.1%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고).

Table 2.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18)

Characteristic		N(%)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Self-esteem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10(2.4)	3.80±0.55	-2.988 (0.003)	3.63±0.38	0.068 (0.946)
	Female	408(97.6)	4.18±0.38		3.61±0.54	
Grade	1	99(23.7)	4.08±0.39[a]	5.822 (0.001)	3.67±0.57	1.333 (0.263)
	2	129(30.8)	4.11±0.37[ab]		3.62±0.51	
	3	167(40.0)	4.26±0.38[b]		3.56±0.54	
	4	23(5.5)	4.25±0.50[b]		3.73±0.57	
Religion	Yes	130(31.1)	4.17±0.40	-0.095 (0.925)	3.65±0.52	1.027 (0.305)
	No	288(68.9)	4.17±0.39		3.60±0.55	
Residence	With parents	202(48.3)	4.15±0.40	1.263 (0.284)	3.59±0.52	1.270 (0.282)
	Dormitory	100(23.9)	4.16±0.38		3.69±0.59	
	Self-catering & Ect	116(27.8))	4.22±0.39		3.58±0.52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Yes	267(63.9)	4.15±0.38	-1.102 (0.271)	3.64±0.54	1.173 (0.242)
	No	151(36.1)	4.20±0.42		3.57±0.54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Yes	91(21.8)	4.27±0.36	2.709 (0.007)	3.64±0.58	0.569 (0.569)
	No	327(78.2)	4.14±0.40		3.61±0.53	

Table 4.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Variables	B	SE	β	t	p
Self-esteem	0.186	0.034	0.256	5.560	0.000
Grade	0.081	0.021	0.181	3.906	0.000
Gender	-0.362	0.120	-0.139	-3.031	0.003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0.090	0.045	0.093	2.005	0.046
F= 15.352	Adjusted R^2 = 0.121				

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전남지역 치위생과 학생들 41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파악하여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성희롱 인식은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18]의 연구결과인 3.63점,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10]의 3.45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1]의 결과인 4.09점 보다는 높았지만 박[14]의 연구결과인 4.19점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정도는 3.62점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23]의 연구결과인 3.53점, 이 등[24]의 3.49점, 박 등[25]의 3.47점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은 성별, 학년, 성희롱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즉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10,12,26]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10]는 최근 우리나라는 위드유와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 성폭행 등이 각계에서 폭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성희롱의 인식이 상승하였고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분위기가 남아 있어 여성은 피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학년은 학년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이[10]와 김[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거주형태는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자취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난 정[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1], 조 등[7], 이[10]와 김[18]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반적 특성 변수가 모두 달라서 일치되는 변수만 비교하였으므로 향후 같은 변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한다. 일반적인 특성 중 종교와 성희롱 예방 교육 여부에 따른 성희롱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박[14]과 이[10], 이 등[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상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를 받았음에도 성희롱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성희롱 교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인식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조 등[7]등, 이[10], 박[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학년,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12.1%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한 결과로 전체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치위생과는 특성상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고 여학생의 비율이 놓은 학과이기 때문에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본 연구는 그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E. S. Chung. (2015).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79-4688.
DOI : 10.5762/KAIS..2015.16.7.4679

[2] M. S. Choi & N. S. Ha.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3] E. J. Kim. (2014).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21(1), 60-68.

[4] S. J. Kim, S. T. Moon & H. S. Kang.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4),* 434-443.

[5] H. K. Moon. (2009). *Effects of education program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for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6] P. H. Chang, J. H, Kim, Y. S. An, M. S. Lee & M. K. Lee. (1995). Sexual Harrassment at Workplace and its Countermeasurement. *Women's Studies Review, 11,* 113-145.

[7] H. E. Cho & B. R. Lee. (2018).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6),* 1003-1012. DOI : 10.13065/jksdh.20180086

[8] M. Rosenberg.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d.* New York : Academaic press.

[9]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10] S. J. Lee. (2018).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5),* 955-962. DOI : 10.9728/dcs..2018.19.5.955

[11] T. I. Kim, Y. J. Kwon & M. J. Kim. (2017).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3(1),* 21-32. DOI : 10.4069/kjwhn.2017.23.1.21

[12] Y. R. Lee, K. M. Kim & S. E. Ghoi. (2013).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40-50. DOI : 10.12799/jkachn.2013.24.1.40

[13] S. G. Kim. (2017).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223-231. DOI : 10.5762/KAIS..2017.18.3.223

[14] S. Y. Park.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3(1),* 85-110.

[15] J. H. Ko. (2013). *The Recognition,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about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of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6] J. S. Lee. (2002). *A re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17] Y. W. Shin, H. Y. Lee, S. K. Lee & Y. I. Cho. (2017).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Behaviors amo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7(1),* 343-358. DOI : 10.35873/ajmahs.2017.7.1.032

[18] S. J. Kim. (2015).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52-362. DOI : 10.5392/JKCA.2015.15.02.352

[19] H. N. Oh & Y. S. Won. (2017). Study of dental hygienist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ab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3),* 419-429. DOI : 10.13065/jksdh.2017.17.03.419

[20] M. E. Kim. (2015). *A Study on Damaging Experiences, Effects, Knowledge and Coping for Sexual Harassment of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21] D. J. Im. (1999). *A Study on cognition of Sexual in Work place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22]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Univ.of Princeton Press. 1.

[23] S. L. Lee.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87-92. DOI : 10.15207/JKCS.2019.10.7.087

[24] H. K. Lee & O. J. Ju. (2015).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3),* 497-504. DOI : 10.13065/jksdh.2015.15.03.497

[25] K. H. Park & H. J. Choi. (2015).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2),* 279-286. DOI : 10.13065/jksdh.2015.15.02.279

[26] Y. S. Kim, C. W. Kim & S. K. Sohn. (2014). The Recognition,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about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of Caddies. *Journal of Korean Golf Studies, 8(3),* 51-60.

이 성 림(Sung-Lim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1996년 3월 ~ 2019년 2월 :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ymsllove@wu.ac.kr

최 정 희(Jeong-Hee Choi) [정회원]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2019년 2월 :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spss1403@nate.com